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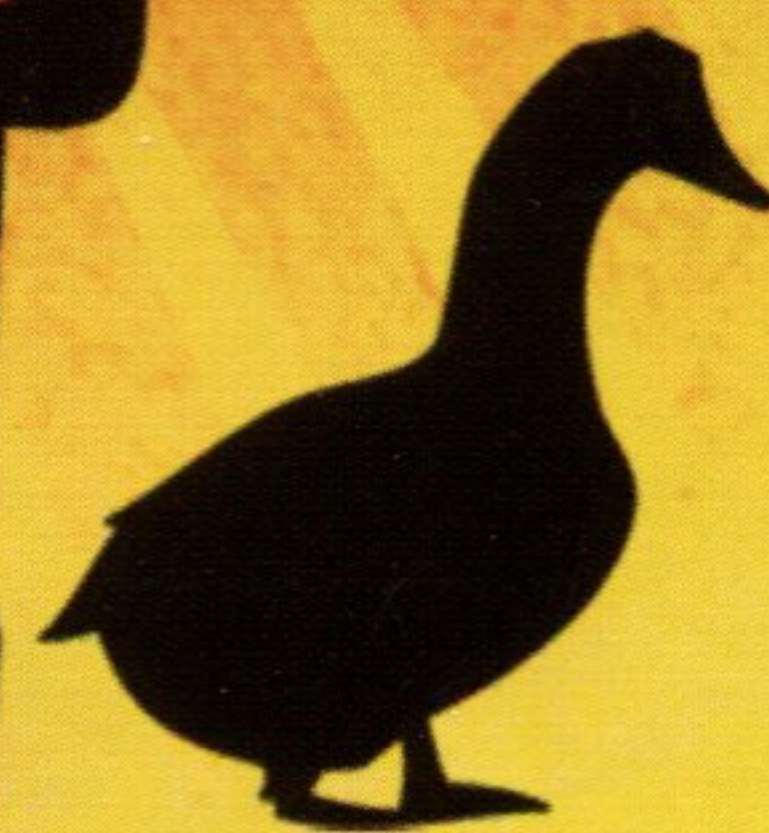
극단아센 제30회 정기공연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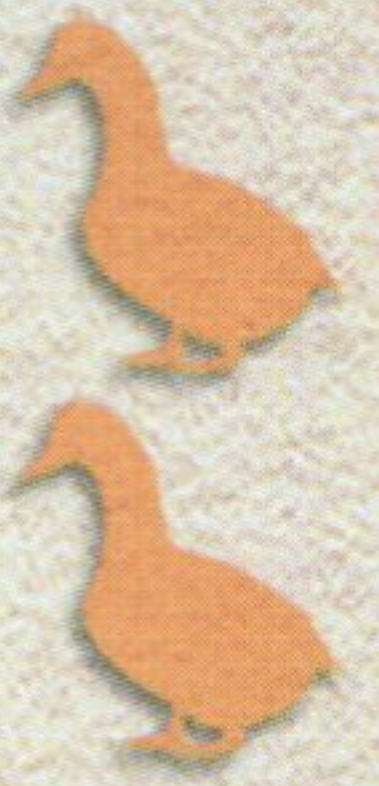


호민의 모노드라마

닭잡아 먹고 오리발



호민의 <닭 잡아먹고 오리발>의 해피엔딩!



- 구 민 주 -



공연 딱 5일 전이다
지금 세상에는 장마비가 무섭게 내리고 있다
새벽2시 20분.

한시간 전인 1시 20분쯤 이제 극장을 나와 집으로 간다는 호민의 문자.

<공연 5일 전. 긴장감 보다는 처연함이.....>

비가 온다는 이유로 바닥 페인트칠을 혼자 하고 있던 호민을 두고 먼저 극장에서 나온것을 후회했다.

<닭발,오리발은 훗날 호민이 힘든 시절 호민 자신에게 바치는 헌정 공연이었음으로 기억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는 문자속 '^^' 이모티콘이 역설적이게 호민의 작금 외로움의 표식처럼 느껴져 가슴이 저려왔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처음부터 계획된 것은 아니었다. 호민의 '닭 잡아먹고 오리발' 은 어쩔 모든 것은 상황 때문이었다. 잘나지도 특출 나지도 않지만 절대부족의 배우를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 미리내소극장의 공연속에 거의 매번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구민주라는 배우의 느닷없는 건강상의 문제로 올 한해 모든 일정에 핑크가 나버린 것이었다.

당분간이라도 공연 아닌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현실이 못되었던 터라 공연을 감행할 수 밖에 없었지만 배우, 스텝 수급문제, 제작비 문제 등등을 감안한 사실상 가장 현실적 해결책이 호민의 모노 드라마 라는 결론에 이르렀었다. 그것도 한여름 3개월 동안 이라는.

무대를 마련해주고 연기플랜을 잡아주고 스텝부분의 모든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연기만 신경써도 혼자 무대를 책임져야 하는 모노드라마는 배우에게 적잖은 부담의 무대다. 허나 <닭 잡아먹고 오리발>을 올려야 하는 배우 호민은 극장의 총체적 인력부족으로 일당백?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속, 극장에서 여러 날을 새벽까지 고군분투 하고있다. 이제 공연은 5일 뒤다 그동안의 육체적 정신적 힘들 속에서도 결코 동요됨을 보이지 않은 호민에게 진정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다.

준비된 단역배우는 주인공 대신 오른 무대에서 결코 자신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듯이 시작은 느닷없었으나 철저한 과정으로 최선을 다한 호민의 <닭 잡아먹고 오리발>은 관객과의 만남에 반드시 진한 소통이 이루어질 것 같은 예감이다. 동지로서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하며.

"해피엔딩. 이는 얼마나 절실히 원하느냐에 있는 것이다" 고 하였듯 절실히 간절하게 원할것이다.

끝으로 어렵게 인연이 되어 호흡을 맞추고 있는 지수, 민규 에게도 호민의 <닭 잡아먹고 오리발>이 의미 있는 경험이길 바라본다.

3개월의 기나긴 여정이 의미 깊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 무사귀환 하시길 진정 바라겠습니다

닭잡아먹고
오리발